

“아무리 매력적인 상품도 유해하면 쓸모없죠”

TV홈쇼핑서 판매하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TV홈쇼핑은 특성상 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한다. 반면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해 쇼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품이다. 자연 TV홈쇼핑 식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NS홈쇼핑은 현재 식품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한 품질관리로 식품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NS홈쇼핑 본사에서 이원주(51)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장(상무)을 만났다.

대전 대덕구 소재 국가공인인증 기관 식품유통량 60%...품질관리 중요
최첨단 장비 조사...소비자 신뢰도 ↑
무료 품질검사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식품안전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2004년 11월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공식인증기관이자 KOLAS(한국인증기구) 사무국을 통해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체 판매 상품 중에 식품유통량이 60% 이상인 NS홈쇼핑에서는 꼭 필요한 품질관리의 핵심 조직이다.”

-유통업체가 식품안전연구소를 운영하는 게 특이하다.
“식품안전연구소는 식품제조업체가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NS홈쇼핑은 식품 유통이 많고 품질보증 절차가 없는 영세농가와 거래가 많아 검증 절차의 필요성에서 설립했다.”

-TV홈쇼핑의 식품 품질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나.
“방송 전 판매상품이 선정되면 적합한 품질을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업체와 상품을 확인한다. 재료를 정확한 시기에 약속한 품질로 수급해 생산했는지 재료 입고부터 소요량 기록까지 꼼꼼



이원주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장은 “식품안전연구소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통한 재구매 증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 재능기부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 내부 모습(아래 사진). 사진제공 | NS홈쇼핑

히 체크한다. 방송 후에도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 소비자가 안전한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질관리에 있어 식품안전연구소에 역할이 있다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모든 식품의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제 수치 등을 조사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만 판매한다. 특히 제작 공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사한다. 방송 후에는 날씨 변화와 배송

시간에 따른 품질변화도 체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 품질관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평소 도상철 사장님이 강조하는 ‘판매 상품을 내 가족이 먹고 내 가족이 쓰는 상품으로 생각하라’를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매력적인 상품도 소비자에게 유해하면 쓸모없음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다”

-철저한 식품 품질관리를 통해 얻는 효과가 있다면.
“이원주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장은 “식품분석 모두 Dream”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학생 교육과 진로 탐색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직업의 실제 모습과 내용을 접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가 있다면.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재구매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산품에 비해 단가가 낮은 식품의 경쟁력은 재구매율에서 판가름난다. 협력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만큼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도 기대한다.”

-협력사 동반성장 차원에서 NS홈쇼핑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도 검사해준다고.
“식품안전연구소가 국가공인인증 기관인 만큼 수출을 하려는 영세농가나 중소기업이 안전성을 판단해 달라고 의뢰하면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검사한 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다. 검사대행료는 받지 않는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협력사의 상품과 소비자 만족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다시 찾아야 홈쇼핑과 협력사 모두 성장할 수 있다.”

-품질관리 결과를 놓고 협력사와 의견충돌도 있을 것 같다.
“의견충돌은 종종 있다. 생산현장에 방문해 상품을 검증한 확실한 자료를 통해 의견을 주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식품안전연구소를 통해 품질관리력을 보완한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상품의 유통을 돕고 협력사와 동반성장할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유통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이원주 상무
▲1968년 대구 출생 ▲1994년 경북대 사법학과 졸업 ▲1995~2001년 LG홈쇼핑 근무 ▲2001년 NS홈쇼핑 입사 ▲2012년~현재 NS홈쇼핑 상무

‘식품분석 모두 Dream’으로 재능 기부까지...

중·고등학생 위한 진로 교육 진행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의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9월부터 매달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재능기부 ‘NS쇼핑과 함께 하는 식품분석 모두 Dream’을 실시 중이

다. 세프가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중·고등학생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서 착안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품안전연구소의 업무 및 현장 위생점검 방법 등 다양한 안전 항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미생물 실험 등을 연구원 가운을 입고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NS홈쇼핑은 10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 기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원주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장은 “‘식품분석 모두 Dream’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학생 교육과 진로 탐색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직업의 실제 모습과 내용을 접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열린 'NS쇼핑과 함께 하는 식품분석 모두 Dream'에 참가한 학생들. 사진제공 | NS홈쇼핑

현대차그룹, AR 내비 출시...차량 내 간편결제도 탑재

(증강현실)

‘ccOS’ 기반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1월 출시 제네시스 GV80에 첫 적용

현대자동차그룹은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간편결제 기능 등을 탑재한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1월 출시예정인 제네시스 차종(GV80)에 최초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6세대 모델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현대차그룹의 독자 차량용 운영체제(OS)인 ‘ccOS’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길찾기 더 편해지는 AR 내비게이션

AR 내비게이션은 차량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도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보여주고, 그 위에 주행경로를 그래픽으로 표시한다. 기존보다 길찾기가 훨씬 수월해

폴목길이나 교차로, 고속도로 출구 등을 잘못 진입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센서를 통해 수집한 차선, 전방 차량 및 보행자 등의 거리 정보를 활용해 차로이탈이나 충돌 위험이 예상되면 경고음과 함께 AR 내비게이션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기능도 있다.

●‘차량 내 간편결제 시스템’ 국내 최초 적용

‘차량 내 간편결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주유소나 주차장 이용 후 결제를 차량 내 화면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제휴 주유소 및 주차장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결제 안내창이 나타나고 이를 터치하면 결제부터 제휴 멤버십 사용, 적립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터치패드에 손으로 글자를 써 시스템을 조작하는 필기인식 기술도 적용했다. 주요용 현대차그룹 인포테인먼트개발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이미지. 사진제공 | 현대차

센터장 상무는 “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커넥티드 카 시대에 운전자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여정이 보다 안전해지고 진보적인 기술을 체험하는 즐거움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재규어, 가상 레이싱카 ‘비전 GT 쿠페’ 공개



재규어랜드 로버코리아는 재규어 최초의 가상 순수-전기 레이싱카 ‘재규어 비전 GT 쿠페’를 공개했다.

레이싱 게임인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의 최신 라인업에 추가될 재규어 비전 GT 쿠페는 재규어의 레이싱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얻었다. 외관에서는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C-TYPE와 D-TYPE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실내는 간결한 디자인의 대시보드 위에 최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했다. 재규어 비전 GT 쿠페의 성능 구현에는 포뮬러 레이싱카 I-타입 4와 I-페이 스 e트로피 레이싱카의 디자인과 개발을 이끈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엔지니어들이 참여했다. 재규어 비전 GT 쿠페는 11월 말부터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 게임에서 만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7일

코스피지수	2144.29	▲	+0.14
코스닥지수	666.15	▲	+3.53
日 닛케이 지수	2만3330.32	▲	+26.50
中 상하이 종합	2978.72	▲	+0.1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541	▲	+0.011
환율 (원·달러)	1159.3	▲	+2.4
국내금값 (원/그램)	5만5428.31	▲	+86.91

“아시아나 매각, 이번은 없었다” 본입찰 애경·HDC·KCGI 접수

‘깜짝 입찰’은 없었다. 항공업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당초 알려졌던 3개 컨소시엄만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이날 오후 2시 마감한 매각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 나섰던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KCGI-뱅크스트리트 컨소시엄이 서류를 접수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예비입찰에 나서지 않았던 SK나 GS, 신세계 등의 깜짝 참여를 예상하기도 했으나, 소문만 무성했을 뿐 이들 기업 중 아무도 본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새 대기업 전략적 투자자(SI)를 참여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KCGI도 기존처럼 중견기업으로만 SI를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 KCGI가 대기업 SI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애경 대 HDC 컨소시엄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1조5000억~2조5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본입찰 서류를 검토해 이달 중 우선인수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연내 매각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전자랜드 ‘창립 31주년 패밀리 세일’ 실시

전자랜드가 11일까지 온라인몰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모든 상품의 최종 결제금액 20%를 전자랜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매일 상품 3개를 선정해 결제 금액의 최대 75%를 전자랜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날짜별 행사상품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밥솥,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청소기, 노트북 등이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는 신규고객 중 추첨을 통해 의류관리기, 안마의자 등을 경품으로 준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